



주님께서는 우리의 명어를 함께 짊어지십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 안에서 무엇이 가장 고민거리이고 걱정거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 빠른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걱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녀의 삶이 걱정되고, 가족의 삶이 걱정되고, 나의 삶이 걱정됩니다.

해결되는 일보다는 혼동과 불안을 일으키는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고 싶은, 의탁하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주님의 복음 말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는 말씀이 큰 위안이 됩니다.

원래 ‘멍어’란 소나 말의 목덜미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그곳에 줄을 달아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합니다. 소나 말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멍어가 있어야 소나 말을 제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멍어가 있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아픔이나, 슬픔, 괴로움, 좌절감, 시련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일생 지고 가야 하는 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힘들고 무겁고 귀찮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내 멍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멍어는 내가, 내 멍어는 내가 메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나의 멍어를 메자는 뜻입니다. 같이 함께 짊어짐으로써 가볍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주님의 사랑입니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같은 멍어를 메고 내가 끌어야 할 짐, 즉 나 혼자만이 겪지 않으면 안 될 고난을 함께 나눠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문다면 결국에는 고통을 은총으로, 멍어를 가벼운 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자신의 삶의 멍어를 기꺼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합당한 용기와 힘을 얻을 것이고, 결국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철현 바오로 신부 | 의령본당 주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즈카 9,9-10

화 답 송

© 저의 임금하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 2 독 서

로마 8,9,11-13

복 음

마태 11,25-30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윤유경 세실리아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성경구절이 있다. 아이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구절.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이 구절에 내포된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니, 바보 같은 행동을 하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몰라 외면하거나 농이나 장난거리로 써먹기도 했다. 때로는 뺨을 때리고, 때로는 뺨을 맞으며 어른이 되었고, 세상도 계절이 바뀌듯 색깔이 변해갔다.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한 학년 한 학년씩 올라가자, 예전에는 몰랐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의 세상에 입문하게 되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지라,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요즘은 워낙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지도할 매뉴얼이 필요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곤 했다.

“친구가 때리면 너도 때려라.”

“뒷일은 엄마가 책임질 테니 맞고 있지만 말고 맞은 만큼 때려라.”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게 많은 요즘 부모들의 매뉴얼인 것 같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는 경우를 허다하게 듣게 되는 것 같았다. 하루는 4학년 아이의 알림장에 선생님의 장문의 글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양쪽이 모두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뜻은 똑같이 때려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로 인해, 너의 행동, 너의 말로 인해 화가 나고 상처받고 아프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라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긴 글을 읽고 오로지 내 아이에게 털끝만 한 손해라도 입히지 않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나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오로지 ‘내 아이, 내 아이’만 줄곧 머릿속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꼭 받은 대로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는다 해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어릴 적 의아하게 들었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라는 구절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았다. 그 구절은 혹시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똑같이 갚아주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보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그 가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당당한 태도로 알리라는 말은 아니었을까?

정답은 잘 모르겠다. 다만 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닌 아이도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또 건강한 어른이 되어 정당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해 본다.

영산본당 순교자의 모후 Pr. 1,000차 기념 주회



영산본당(주임: 유청 안셀모 신부) 천상은총의 어머니 Cu. 직속 순교자의 모후 Pr.(단장: 하경숙 아가다)은 6월 27일 1,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순교자의 모후 Pr.은 2002년 3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행동 단원 6명과 협조 단원 8명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영산본당은 공소에서 2021년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공소 시절 단원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했던 사제의 훈화 말씀과 강복을 매주 회합 때 이루어져, 항상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 본당 사목회장단 및 신자들이 함께하며 축하와 기쁨을 나누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18

칠원지역 교우촌

함안지역 교우촌 뿌리는 낙동강과 황강 그리고 남강을 따라왔던 피난 교우들이라 했다. 남강이 낙동강을 만나는 지역은 홍수가 반복되는 곳이다. 지역민은 알고 있었기에 강변 땅을 포기하고 살았다. 그러나 피난 교우들은 그 땅을 근거지로 모였고 귀착지로 만들었다.

황강 역시 해마다 낙동강에 홍수를 쏟았다. 그때마다 창녕 쪽은 물바다가 되었고 웬만한 제방으로 견딜 수 없었다. 철종 이후 국가 경제론 시골의 제방보수란 엄두를 못 낼 일이었다. 남강 역시 마찬가지. 장마철이 되면 낙동강을 넘치게 했고 창녕지역 유어遊漁, 남지南旨, 길곡吉谷 등지에 영향을 끼쳤다. 낙동강이 역류해도 못 빠져나간 남강물이 함안 쪽 저습지를 물바다로 만들곤 했다.

이런 이유로 함안과 창녕지역에 피난 교우들이 머물 수 있었다. 홍수로 방치된 강변 땅을 일구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다 피난 교우들도 홍수를 체험하면서 차츰 내륙으로 이동했고 지역민을 입교시키기도 했다. 물론 강 따라 떠난 교우들도 많았다. 창녕 모래늪(沙池), 고리실(環谷)공소와 남지의 수개樹介公소 길곡의 시름曾山, 마천馬川公소는 이렇게 형성되었다. 함안지역 동박골(洞白), 가등佳嶺公소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낙동강은 창녕과 함안 사이 경계를 만들며 흐른다. 두 지역은 나룻배로 왕래했고 여러 곳에 나루터가 있었다. 특히 대산과 남지를 잇는 옷개나루(上浦津)와 길곡과 칠북면(漆北面)을 연결하는 멸포나루(買浦津)가 유명했다. 교우들도 나루터를 이용했다. 뱃길을 통해 창녕, 남지, 길곡공소와 함안지역 공소들은 교류를 가졌다. 특히 길곡에서 낙동강을 건너면 바로 칠원 땅이다. 자연스레 교류가 이어졌을 것이다. 길곡의 시름공소는 강성삼 신부 1902년 보고서에 교우 22명, 예비자 27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당시로선 큰 공소였지만 지금은 흔적이 없다.

시름공소는 지금의 길곡면 증산리에 있었다. 마을 뒷산이 시루처럼 생겼다 해서 시름이라 했고 한문 표기한 것이 증산(甞山/曾山)이다. 시름공소 교우들도 대부분 강 건너 칠원 쪽으로 이동했거나 강 따라 밀양 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칠원에는 죽청竹淸公소가 있었다. 부산본당 2대 주임 우도(Oudot 오보록) 신부의 1895년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1894년 이전부터 죽청 마을엔 교우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주소로는 칠원군 북면 운서리雲西里 구름실(雲谷) 서쪽이란 뜻이다. 무릉산과 작대산 사이를 구름실이라 했다.

죽청공소 역시 피난 교우들이 내륙 정착에 성공한 케이스다. 강을 건너온 교우들이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최근까지도 죽청공소는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100년이 훨씬 넘는 공소인 셈이다. 지금의 칠원면은 1908년까지 칠원군漆原郡으로 있었다. 현재의 마산합포구 구산면龜山面도 칠원군이 관장하고 있었다. 넓은 행정구역이었지만 1908년 함안군에 편입되어 칠원면으로 축소되었다.

1870년대부터 작업이 시작된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엔 정서방鄭書房이란 분이 나온다. 원문(現代文)은 다음과 같다. ‘정서방은 경상도 칠원 돛섬서 살더니 정묘 정월에 진주 포교에게 잡혀 진주옥에 여러 달 갇혔다가 병들어 죽으니. 들은 이는 지금 익산 도화정에 사는 최 바오로와 프란치스코 형제더라.’ 진주 순교자 정서방은 당시 칠원군 구산면 돛섬猪島에 살았던 것이다. 포졸들이 잡으러 온 것으로 보아 이곳에 피난 교우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속칭 콰이강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옛 교우촌처럼 여전히 숙연함을 자아내는 장재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진주의 고즈넉한 외곽지역 주택가에서 장재동성당을 만난다. 입구 오른쪽에 선 <장재동본당 이야기> 구조물이 눈길을 끈다. 마당에 발을 들여놓으면 왼쪽 담벼락을 따라 야외 십자가의 길이 나 있다. 한 처씩 따라가면 뒷동산으로 오르고, 14처가 끝날 즈음에 자그마한 성모동굴이 나타난다. 1938년 조성하여, 모신 성모님은 몇 번 바뀌었지만 동굴은 그때 그대로이다. 그리고 예전 성당으로 쓰이다 사제관으로 사용했던 오래된 건물과 종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소박한 길을 순례자의 걸음으로 걸으면 이곳에 깃들었던 신앙의 숨결이 전해질 수 있다.

오래된 신앙의 뿌리

장재동은 ‘비라실’ ‘장재리’ ‘장재실’이란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곳에 인동 장씨 3형제가 이주하였는데, 막내인 장익금이 병인박해가



옛 성당



성모동굴

이어지던 1871년 천주교 신자인 문산 제씨와 혼인하였다. 4년

쯤 후 장익금은 부인의 권유로 이시도로로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비라실의 첫 교우가 되었다. 그 후 형제들과 친척들도 모두 입교하여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비라실 안골로 이사했다. 만형의 집을 임시 공소로 사용하였으며, 장 이시도르는 첫 공소회장을 맡게 되었다.

1888년 진주에서 윤봉문 요셉의 순교가 있었다. 이때 장 공소회장과 몇 사람이 순교자의 시신을 빼내어 말티고개를 넘어 공소 뒷산인 교우산 너지골에 가매장했다. 8년 동안 비라실 교우들이 가매장 터를 지켰기에, 1896년 순교자 후손들이 거제 족박골로 시신을 옮겨갈 수 있었다. 이런 연유로 비라실 교우들의 신심이 깊어지고, 신자가 불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주님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임해원 안토니오 주임 신부, 장용희 바오로, 김순정 모니카, 박주영 도미니카 사무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장용희 바오로는 장익금 이시도로의 후손으로 몇 차례나 회장을 역임했다. 이제 연로하여 직책은 맡지 않아도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신앙의 고리를 만들며 자리를 지킨다. 김순정은 현재 회장인 금영제 아우구스티노의 모친으로, 바쁜 아들을 대신하여 평일미사에 참여하고 본당일에 보탬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 미사에서는 봉헌자가 아니라도 아픈 사람들을 일일이 호명하고 지향하여 미사를 올리는 사제의 정성에 고개를 숙인다. 박주영 도미니카 사무장은 어르신 산간학교가 2박 3일로 진행된 때를 떠올렸다. 젊은 자매들이 봉사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30여 명 어르신들이 캠프생활을 했던 꿈같은 시간이었다. 올해는 숙박은 못해도 하루 나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단다.



현재의 성전은 1957년에 건립하여 때마다 보수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른다. 임해원 신부는 부임 후 노후한 면면을 살폈다. 목재로 된 야외 십자가의 길은 훼손이 심해 2021년 10월에 새로 마련했다. 작가의 도움으로 디자인하고, 서울 신자가 후원하여 대리석 조형물로 설치했다. 11월에는 자갈로 되어 불편했던 마당에 블록을 판판하게 깔고 잔디를 심어 통행이 수월하게 공사했다. 12월에는 <장재동본당 이야기> 게시판을 설치했다. 이듬해 봄에는 벽돌을 붙이는 성전 외벽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본당주보성인 소화 데레사도 성전 입구에 모셨다. 연이어 창문 공사를 마무리하여 4월에 축성식을 가졌다. 과제는 많고 재력도 인력도 부족한 성당이지만, 하나씩 이루려고 할 때마다 뜻밖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보탤다.

본당출신 사제 최태준 필립보를 뒤이어 귀한 신학생 장규원 마태오가 있는데, 장용희 바오로의 손자이다.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해 군복무 중이지만 본당에서는 2호 사제가 탄생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임해원 신부는 신학생이 입대하기 전에 본당의 역사를 찾고 정리하여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했다. 이 작업을 매듭짓기 위해 신학생이 10월에 제대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85년이 된 본당 역사를 비록 책으로 발간하지 못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한다.

한 가족처럼 용기종기

주임 사제는 몇 대에 걸친 신자들이 한 가족처럼 용기종기 살아간다고 자랑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물 세실리아 자매가 87세로 선종했다. 레지오 활동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외지의 자녀들은 모두 신자가 아니고 돈도 관심도 없었다. 이에 오래 함께 생활했던 안타까운 30여 명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 백만 원을 마련해서 연미사를 청하는 것을 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다.

교리교사 3명이 애쓰는 주일학교도 있다. 올해는 드물게 5명이나 첫영성체를 했다. 교리가 있는 기간 동안 아이들의 소리가 성당을 즐겁게 만들었고, 주일미사에는 찌렁찌렁한 아이들 소리에 어른들 가슴이 벅찼다. 성가대가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미사에 성가를 부르고, 반주자도 네 명이나 되어 각 미사를 담당하여 전례를 복돋운다. 아파트 단지 덕분에 주일미사 참례자도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다.

교구에서 농아선교회 수어미사를 맡고 있는 임해원 신부는 지난해 본당의 날에 농아인 교우들을 초대하여 수어미사를 올렸다. 미사 후에는 그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본당 신자들이 나와 다른 내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이만 하면 됐다는 선을 그어서 실행하는 것은 부족하단다. 한계를 짓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니란다. 한발자국 넘어서는 지점에 하느님 나라의 국경선이 있단다.



교구/본당

전국 홍보국장회의

일시: 7월 12일(수)/ 장소: CBCK

전국 사회사목국장회의

일시: 7월 14일(금)/ 장소: CBCK

제3차 본당양업22 실습 교육

일시: 7월 13일(목)/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교육 봉사자 직장인반 집중교육

일시: 7월 15일(토) 09:3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사목부 성경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7월 27일(목)까지(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소성리 평화미사 참가자 모집

일시: 7월 10일(월)~11:0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출발

접수: 40명(선착순, 참가비 없음)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10·2759·4178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7월 기도모임

일시: 7월 17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
시티(11:06)~현대주유소(11:16)~
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성독)

일시: 7월 22일(토) 10:00~17:00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집

준비물: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9996·3361(박 사려)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일시: 8월 12일(토)~13일(주일)~중1~고2

8월 19일(토)~20일(주일)~고3~일반인

장소: 대전 정림동 살레시오 수련관

접수: 7월 30일(주일)까지 마감

문의: 010·6221·3520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2023년 봉곡동본당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대우(루카)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군식(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경희(실비아)

총무: 구분관(후고)

재경위원회위원장: 박인선(바오로)

전례분과장: 도경희(스텔라)

선교분과장: 최선호(베드로)

교육홍보분과장: 김점숙(엘리사벳)

구역분과장: 이정희(글라라)

가정사목분과장: 김영선(로사)

사회복지분과장: 정운서(베드로)

시설관리분과장: 이상수(제노)

청소년분과장: 객점순(엘리사벳)

연령회장: 윤재식(안젤로)

나눔의집관리담당: 이경희(실비아)

캄보디아 돈보스코학교 학생들을 위한 후원물품 모으기 안내

교향 회칙 「모든 형제들」 “인류 가족의 사명으로 새겨진 형제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난한 아동들에게 후원물품 보내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간: 6월 23일(금)~7월 30일(주일)까지

후원물품: 피부연고제(후시딘, 세레스톤-지), 칫솔셋트(여행용, 생리대)

접수: 각 본당 사무실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교구 평협 사무처장 010·3880·4675

교향 회칙 「모든 형제들」 “인류 가족의 사명으로 새겨진 형제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난한 아동들에게 후원물품 보내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캄보디아 포이펫 돈보스코학교 학생들을 위한 후원물품 모으기 안내

- 의약품(피부연고제)
 - 1) 후시딘
 - 2) 세레스톤-지
- 위생용품
 - 3) 치약 칫솔 세트(여행용)
 - 4) 생리대
- 수거 기간: 2023년 6월 23일~7월 30일(5주간)
- 제출 장소: 본당 사무실
- 문의처: 본당 사무실
 - 평협 사무처장 (055-249-7114)
 - 평협 사무처장 (010-3880-4675)

[후시딘] [세레스톤-지] [치약 칫솔 세트] [생리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7월 1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악마의 현대 영성에서의 의미	주원 하상 바오로 신부(가르멜수도회)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월 15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7월 16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10월 16일 출발 남스페인과 모로코 순례 13박 14일-495만원

10월 16일/ 11월 6일/ 12월 4일 출발 나가사키 순례 3박 4일-125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ur.co.kr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7

문정일 바오로(망경동본당)

본당 복음화분과장님께서 ‘작년에 진행된 공소 순례에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 사순절에 차량 봉사를 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공소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8명이나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공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순례에 대한 열망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우선 공소 순례 안내 책자를 구하기 위해 교구 평협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1차 공소 순례는 마감되어 완주 축복장까지 배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시작하는 2차 공소 순례를 이용해 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내 책자도 없이 순례하는 상황이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회사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교구청에 달려갔습니다. 교구청 창고를 뒤져서라도 순례 책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마침 교구청은 각 부서마다 이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종이박스 주우려고 온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행운. 1층 우편실 구석 작은 성모상 옆에 포장되지도 않은 순례 책자 20권이 있었습니다.

교구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어떻게 둔건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망경동성당을 위해 준비된 것 같다’며 흔쾌히 무료로 내어 주었습니다. 연신 성모님께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며 우리도 스탬프 찍으며 공소 순례할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공소 순례를 위해 본당 승합차 두 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임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서로서로 양보하여 목요일 팀 9명, 토요일 팀 9명으로 차량 배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꽃 피는 3월, 우리들의 공소 순례는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꽃길이어서 “꽃들이 고마워. 피어줘서 고마워” 환호성을 지르고, 그동안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세상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고래고래 소리치며 만끽하였습니다.

순례 중 공소에 도착하면 그 옛날 차도 없던 시절, 오지마을 깊은 골짜기까지 사목활동을 하시던 최양업 신부님은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나오면 꽃들과 눈 마주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또 공소에 도착하면 사순절이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매일 함께 바친다는 공소 신자들의 열정에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각오도 다지는 4주간의 행복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늦게라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2023년 공소 순례’ 책자에 망경동성당 순례 사진이 인쇄되어 축복장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보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차량 봉사는 제가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모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체험, 행복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공소 순례단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5월 성모 성월 성모님과 함께 2차 공소 순례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1차 순례단 전원이 함께하기로 약속해 주셨으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뜻밖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탄생(1사무 1,1-2,10)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사무엘이 탄생하던 시기는 철기 시대 초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지배하였던 이집트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강대국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가나안과 시리아지역의 부족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며 도시 국가들을 형성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시기에 느슨한 지파 연합에서 왕정으로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지파 연합에서 왕정으로의 전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전이 과정이 바로 사무엘기 상권에 묘사됩니다. 성경의 역사가는 한 인물의 등장과 그의 경쟁자의 몰락이라는 구성을 통해 이 전이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순례를 떠날 지역은 예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타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예프라임족인 엘카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각각 한나와 프닌나였습니다. 프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카나는 해마다 실로 성소로 올라가서 주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 사제의 두 아들인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실로 성소에서 사제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엘카나는 제사를 드릴 때 프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주었고,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한몫만 주었습니다. 그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프닌나는 해마다 한나의 화를 돋우며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카나의 위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쓰라린 마음을 안고 성소에서 울면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인 한나는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태어날 아기를 평생 나지르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엘리 사제는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한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줄 알고 엘리 사제는 술에서 깨어나라고 야단을 칩니다. 당시에는 탄원자가 성소에서 큰 소리로 하느님께 탄원을 드리면 사제나 예언자가 이에 대한 응답을 주었고, 탄원자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소리도 못내고 하느님 앞에 괴롭고 분한 마음을 털어놓던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하느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응답합니다. 한나는 이 응답을 듣고 돌아가 음식을 먹었고, 전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주님께 청을 드려 얻은 아이라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이듬 해에 엘카나가 다시 주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한나는 성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면 그때 아이와 함께 성소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엘카나는 이를 허락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실로 성소로 올라갑니다.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가서 아이를 평생 나지르인으로 봉헌하며 엘리 사제에게 맡깁니다. 한나가 엘리 사제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기며 웅은 감사의 찬가가 “한나의 노래”입니다(1사무 2,1-10). 이 노래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실 때 노래했던 마니피캇과 매우 유사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 세도가와 비천한 이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느님의 힘을 찬양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마포 에포트를 두르고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한나는 그 이후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